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12월 27일 (제82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사랑과 봉사

사랑! 사랑은 외롭지 않다.
 사랑 속에 이해와 용서, 배려, 희생이란
 따뜻한 의리의 친구가 함께 있기에 외롭지 않다.
 용서! 용서 속에 사랑을 싹틔울 힘과 용기,
 넓은 이량과 이해란 따뜻한 의리의 친구가 함께 있기에 외롭지 않다.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현재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미래도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랑만이 영원히 쇠퇴하지 않고 타오르는 정열의 불꽃이다
 그래서 누군가 사랑해보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며 살맛나는 세상이라 외치며
 삶의 에너지가 솟구친다 말할 것이다.

사랑은 묘약, 용서도 묘약!
나는 힘차게 외치고 싶다. 세상에 제일 고귀한 것은 사랑이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용서라고.
사랑과 용서는 떨어질 수 없는 천생연분, 이 땅의 행복한 부부라고.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외롭지 않다고 힘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대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자,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죽은 자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참혹한 고통 속 어두움뿐이라는 걸 알게.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묘약이라네.
남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을 뛰어넘는 위대한 자요,
예수의 영원한 친구라네.

사랑과 용서,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한 폭의 화선지 위에 핀 묵화 묵화 꽃이라오.
사랑과 용서는 외롭지 않다.
우리를 밀어주는 영원한 동반자 예수란 친구가 있기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용서하자
외롭지 않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네!

2015년 12월 22일 목회 31주년에 朋友 이초석

초석

2015년의 발자취!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민14:26~30)



야생마와 명마는 무엇이 다른가?

야생마와 명마는 무엇이 다를까요? 태어날 때부터 야생마와 명마가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과테말라 집회에 갔을 때, 2대 재벌 후안의 저택에 머물며 말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여러 말을 타봤는데, 야생마와 명마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생마는 고삐를 매어놔도 난리를 치고 맘대로 돌아다니는 반면에 후안이 명마라고 지목한 말은 정말 말을 잘 들었습니다. 왼쪽 고삐를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을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양쪽을 잡아당기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후안이 그러더군요. 야생마도 교육시키면 명마가 된다고요. 명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개도 교육받으면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짖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사람도 여우 밑에서 크면 여우처럼 울부짖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 입이라고, 입이 열렸다고 아무 말이나 뱉습니다. 남이 상처를 입거나 말거나, 내 가치가 추락하거나 말거나, 말로 내 인생이 엷히거나 말거나 마구 쏟아냅니다. 더러운 말도 하고, 추악한 말도 하고, 저주도 하고, 부정적인 말도 하고, 음담패설도 합니다. 그래놓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말이 조련사에 의해 조련을 받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을 사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을 낳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을 낳는다는 진리를, ‘오늘 되지 않아도 내일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영경귀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지 않습니까(마7:16)?

말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음이란 주머니에 말이 들어 있다가 툭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마음에 음란이 가득하면 세속적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언제나 생명의 말, 진리의 말, 긍정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습니다. 제가 늘 ‘백문백답(百問百答)이 예수, 천문천답(千問千答)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이 오직 영적인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거짓의 말이 계속 나오니까? 맑은 물이 나오지 않으면 내 집의 파이프 라인을 갈아야 하듯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갈아야 합니다. 거미줄을 얹만 치워도 거미를 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 말입니다.

여러분, 명마와 야생마를 생각하면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베드로는 야생마였습니다. 조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아무 말이나 툭툭 바로 뱉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명마가 되더니 이런 멋진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1:5~7).

언젠가 제가 초소형 녹음기를 차고 하루를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인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한 겁니다.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 녹음된 제 말을 들어보니 정말이지 부정적인 말 하나 없이 다 긍정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조절이 잘 되는 명마는 아니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하는 성격이고, 조급하여 말부터 던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수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니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참을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마가 되니 가치가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한 겁니다.

나 이 높습니다. 명성이 따라오고, 많은 사람이 저를 좋아합니다. 하긴 아무나 보고 짓고 무는 개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보신탕집에 팔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무 말이나 뱉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교육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교육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볼까요? 다윗은 처참한 지경에서도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23:6) 라고 말하더니 그의 말년이 부하고 존귀했습니다. 욥은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간 상황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1:21) 라고 말해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며,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힘들다고 ‘죽겠다’, ‘못 살겠다’, ‘벌어먹을

놈’, ‘불황이라 안 돼’, 이런 말일랑 하지 마시다. 그 말대로 죽을 일만 생기고 벌어먹을 일, 불황만 계속된단 말입니다. 야생마가 날뛰면 기물이 파손되고 주위 사람들이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야생마 자신도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야생마처럼 날뛰면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내 자신도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말은 사람으로서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

말은 곧 예술이다 인생을 디자인하라

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3:8).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뿐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을 고를 때 절대 학력이나 인물을 보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고 했답니다. 왜겠습니까? 말속에는 그 사람의 본심이 들어있고, 말을 통해 그 사람 됨됨이와 신앙을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 미래까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는 물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 썩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썩어 썩은 말을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수 없습니다. 축복하면 이생뿐 아니라 내세까지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썩은 생각, 부정적인 말은 뿌리째 잘라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게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말, 감동하는 말을 올려드려 복 받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찬이 좋아야 입맛이 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약3:2). 무슨 말씀입니까? 교육받아서 명마가 되라, 그러면 네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남미 집회를 마치고 미국 애틀랜타에 들렀을 때 한 골프장에 갔는데 벽에 장식되어 있는 앤틱(antique)이 좋아 보여 사려고 했더니 동행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그거 안 팔아요.”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물어보기도 전에 안 판다고 말로 뿌렸으니 팔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야단했습니다. “네가 안 판다고 했는데 팔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그러나 나는 된다. 오늘은 안 되지만 내일은 된다.” 그리고는 다음 날에 또 가서 인터넷에 나온 제 사진을 보여주며 팔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글썽 죽히 1,500달러는 나날 그 조각품들을 저에게 단돈 15달러에 팔더라 말입니다. 제가 왜 그곳을 다시 찾아갔을까요? 앤틱

신년 축복성회

1월 4(월) ~5일(화)
저녁 8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구.펜싱경기장)

문의: 02-533-9191

목사님 성역 31년, 목사님의 소망

어느덧 목사님의 성역 31주년!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세계 72개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로 선교하는 교단,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교단이 되었다.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강과 바다와 산을 넘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겨가 시던 중 목사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던지는 화두를 던지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 30년!’이다. 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선언이다. 30년간 쉽없이 기관차처럼 달려오셨으니 한 인간으로서 어찌 잠시 쉬고자하는 마음이 없을까만, 목사님께서서는 진짜 시작은 이제 부터임을 천명하시며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셨다. 목사님의 깊은 생각과 열정에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다시 춤

을 추기 시작했고, 가슴은 청년의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이러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문득 떠오른 한 사람이 있다. 바로 10년 전 작고한 경영학의 대부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이다. 그는 9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30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남기며 세계 경영의 흐름을 주도한 석학 중의 석학이다. 어느 날 그는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교수님의 수많은 베스트셀러 중에서 최고의 책은 어느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음에 나올 책.” 학생은 탄복했고 다시 질문했다. “교수님은 80이 넘는 연세이신데도 저보다도 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피터 드러커

는 답했다. “대학시절, 세계적인 작곡가 베르디가 작곡한 ‘팔스타프(Falstaff)’라는 곡에 반했다네. 그런데 내가 총격을 받은 건, 이 엄청난 곡을 베르디가 80세에 작곡했다는 사실이었네.” 피터 드러커는 80세의 나이에도 완벽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베르디의 삶에 큰 감동을 받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던 것이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3:13~14)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따로 있겠는가. 다만 생각과 마음이 다를 뿐이

다. 이미 이룬 것들은 뒤로하고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명품인생을 살기를 바라시어 이러한 표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또 다시 새해가 목전에 왔다. 이전 것은 지나보내고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목사님의 소망이며,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축복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다. 어찌 주저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목사님의 목회도 우리 교회도 이제 31살, 우리의 청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구원목사

오산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예수중심교회 집회는 언제나 장소를 불문하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인상적이다. 해마다 대구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누구나 그렇듯이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받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대구 교회는 평소에도 내 목회에 도전을 주는 지교회중에 하나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대성전과 소성전에 앉을 자리가 없이 서서 예배를 드려야할 정도로 성도들로 가득 차 내 목회에 도전정신을 일깨워 준다.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거의가 70~80세 정도인 어르신들이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마치 부모가 사랑스런 어린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듯이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알기 쉽게 말씀을 전하셨다. 설교 듣는 어르신들을 살

펴보니 연신 고개를 끄덕이거나 서로 마주보며 “맞는 말씀만하네.” 하면서 집중하여 설교를 듣는 모습이였다. 또한 교회 중책들은 집회를 마치고 친절하고 노련하게 성도들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긴다는 사실이 느껴져 나에게는 참 감동적이었다. 거기에서 한송이 목사는 “어떻게 이 밤에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냐?”는 나의 질문에 “함께 기도하며 장로님과 전도사, 조장들이 자원함으로 사비를 들여 애쓴 결과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한 목사님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같다. 또 하나 내가 느낀 것이 있는데, 강단 앞에 ‘오직기도, 오직전도’ 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교단의 모든 주

의 종과 성도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인데, 듣고 실천하는 교회임을 알 수 있었고, 총회장 목사님과 영적인 호흡이 잘 맞는 교회라 생각된다. 집회를 마치고 총회장 목사님을 가까이 뵈었을 때 전신이 땀에 젖으셨지만 매우 흡족하신 표정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총회장 목사님의 목회 31주년을 맞이하여 대구 교회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총회장 목사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귀한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된다. “오산 교회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는 총회장 목사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본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안에서 우리 오산교회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차명선 목사**

친정아버지 같은 목사님

24년 전 팔아이 손잡고 산책나선 올림픽공원에서 이상한 소리에 이끌려 들어 다본 역도 경기장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떠나가라 소리 소리를 지르며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목사님과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성도들까지. 처음 보는 이상한 예배 분위기에 ‘뭐 저런 이상한 교회랑 목사님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지인의 소개로 ‘귀신 추방’이라는 비디오테이프를 접하게 되었는데 역도경기장에서 봤던 이상한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끊이지 않는 예수중심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지인의 강권에 절대로 그 교회는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난 그 예배의 자리가 궁금했고,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어느새 맨 앞자리에 앉아 팔아이와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우리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지근거리에서 일하면서 제게 목사님은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로 상처를 받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위해 축복기도를 해주시는데 “히야까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목사님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말씀 드린 적이 없건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정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 성도들의 아주 작은 신음까지 헤아리시며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절망스럽고 낙담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았을 때, 목사님은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셨고, 용기를 주셨으며 일으키셨습니다. 해외선교 여정 가운데 다음 환승 비행기를 기다리시면서 까지 전화하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셨습니다.

단 위에서는 복음의 장엄한 선포와 영적 싸움을 치러내시느라 최선을 다하시며 강하고 담대하시지만, 단 아래서는 한없는 사랑과 세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시는 우리 목사님, 당신께 맡겨진 양 무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늘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시면 목사님의 땀에 흠뻑 젖은 와이셔츠가 이번 예배도 치열했던 영적 싸움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30년을 달려 오셨고, 이제 다시 뛰는 30년을 선포하시고 그 원년의 2015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다시 30년을 뛰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친정아버지’를 위한 자녀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꼭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 제 기도 응답하신,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삼숙 집사**



귀를 기울이세요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남자

여기 인생 대부분을 실패로 보낸 불행한 남자가 있다. 그는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했다. 9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3살엔 직장을 잃었다. 그 후, 용기를 내어 일리노이 주 의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24세, 회사를 차려 사업에 도전했다 도산했고 이 때문에 17년 동안 빚에 시달려야 했다. 26세, 사랑하는 여인을 백혈병으로 잃었고, 그 후유증으로 신경 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 27세,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했다. 29세, 겨우 몸을 추스르고 주의회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떨어졌다. 이 후 그는 선거에서만 모두 6회 낙선했다. 31세, 정부통령 선거위원 실패! 34세, 하원의원 선거 실패! 39세, 하원의원 선거 실패! 47세, 부통령 선거 실패! 49세, 상원의원 선거 실패! 그는 공식으로 27회 낙선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언론에서 그를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으로 부를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27회의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인생 막바지에 성공을 거둔다. 51세, 미합중국 16대 대통령 당선, 그의 이름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그는 미국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북전쟁에서 노예해방을 주장한 북군을 승리로 이끌어 미국의 통일에 이바지했다.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신앙의 10계명이 있을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누군가 링컨에게 물었다.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링컨이 말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전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 활용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바깥으로 곤두박질 치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스브스 뉴스 발췌)

대입에 실패했습니까? 취업에 실패했습니까? 결혼에 실패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지난 주일 이초석 목사님께서서는 자신은 실패나 실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이것은 단지 경험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길이 조금 미끄러울 뿐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낭떠러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12월 25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커플들을 위한 날이나 화려한 이벤트도 아니지요. 그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친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 모든 아기는 축복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납니다. 가난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어 하고, 못 배운 부모일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욕심 없는 부모일지라도 아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랄 겁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고생하거나 일찍 죽기를 바라지 않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로 예정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 죽기까지 각오한 사랑, 그리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12월 25일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없는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돼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서 기분 좋은, 그저 그런 노는 날이 아닌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놀까, 연인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들떠할 때에 적어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달라야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러야 기뻐할까, 이런 마음으로 들떠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에 지각하지는 않았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루고,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아끼지 않으면서 헌금에는 인색하지 않았는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입술에 불평이 가득하진 않았는지, 과부 두 렘돈과 마리아의 향유유합 같은 온 마음과 정성을 예수님께 드린 날이 언제였는지 뒤돌아봅니다.

혹시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난다면 이번 성탄절에 드려보는 건 어떨지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선물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배에 지각했던 사람이라면 그날만큼은 교회에 일찍 나와서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꼭 참아보는 겁니다. 잘 웃지 않았던 사람은 억지로라도 웃어보고,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전도를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예수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364일 늘 예수님께 받기만 했다면 딱 하루, 그날만큼은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발효되는 삶

‘다시 시작하자, 3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2015년 한 해가 곧 저물어 간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굶다(와타나베 이타루)’라는 책의 일부가 떠오른다.

‘발효와 부패’에 관한 대목으로 저자가 시골빵집에서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천연 균으로 실험한 결과, 유기 작물에 균을 배양하면 썩어버리던 것이 자연 작물에서는 잘 발효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겉만 강한 자는 막상 균이 들어오면 부패하고, 자연이 만든 내면이 강한 자는 균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발효가 되어 세상에 더욱 쓸모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연산 중에 자연산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현듯 낙심의 강력한 균이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낙심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부패하고 썩어져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 속 ‘엘리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이세벨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도 당당히 맞선 자다. 하지만 그런 그도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크나큰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이세벨의 공격에 낙담하였고, 로렘나무 아래 주저

앉아 차라리 자신을 죽여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께서 부여 주시는 외적인 권능은 강했으나 사실 그의 내면은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낙담하는 참으로 연약한 자였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기도하다, 선을 행하다, 전도하다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엘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며 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느냐며 다독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세밀한 음성’의 힘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엘리아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강한 바람, 지진, 불의 역사 앞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새로운 사명 앞에서는 힘을 얻고 다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말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보다 시나브로 일어나고, 당장 내 생각과 달라 보여도 걱정하거나 낙담하지 말자. 그저 2015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2016년, 새롭게 부여 주실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여 다시금 일어나 굳게 서자!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며 우리는 다만 그 안에서 숙성되고 발효되어 세상에 더욱 유익한 자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 할렐루야!

하인명
renming@daum.net

정리할 시간이야!

여보게!
‘2015년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벌써 12월이 되었네. 세월이 20대에는 20km로 가고, 30대에는 30km, 50대에는 50km로 간다더니 틀린 말이 아닌 거 같네. 60km로 달리는 게 확실해. 어지러울 정도로 너무 빨라.

한 해를 다시 보내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다시 30년을 뛰어가려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네. 30년은 장거리거든. 장거리를 뛰는데 몸이 무거우면 되겠는가? 이제 내 나이 60중반을 넘어 70을 향하고 있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네.

얼마 전 어느 지인을 만났는데, 그 분이 그러더군.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많은 재산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살아 있을 때 가난한 이웃도 돕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해야겠다고 하더군. 그 말에 나는 무릎을 쳤다네.

여보게!
삶을 단순화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냐? 그건 욕심을 버리는 것일세. 더 갖겠다는 마음, 더 높아지려

는 마음, 뭔가 더 이뤄보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야.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야. 자네 삶의 의욕을 꺾으려는 말은 아니네. 다만 때에 맞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야. 준비를 하자는 거야.

나는 주의 종이 되고자 할 때 욕심은 이미 버렸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9:23)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다만 내가 내려놓을 것은 일에 대한 욕심이야. 늘 ‘어떻게 하면 더 주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 속을 더 시원하게 해드릴까’ 고민하다보니 일을 자꾸 벌이게 된다네. 그러나 벌여놓고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덕이

되지 못할 것 같기에 이제는 정리하고자 하는 거라네.

요즘 교계가 시끄럽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왜 그런지 아냐?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야. 주께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졌으니 여기에 부딪치고 저기에 부딪치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나고, 더는 교회가 깨지고 그러는 걸세.

우리 내려놓으세. 그것이 복 받는 길이거든. 성경도 말씀하시지 않았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세상의 것으로, 욕심으로 꽂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큰 그릇은 비어

있는 그릇이라고 늘 말하지.

우리는 내리막 인생이야. 그렇다고 허탈해 할 것은 없네. 누구나 산에 오르면 내려오는 것처럼, 인생도 정점을 찍으면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내리막이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것은 아니야. 내리막 인생은 배낭의 무게가 가벼운 것처럼, 인생의 무게도 가벼워 산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도 부를 수 있으니 더욱 즐겁지 않겠나. 자네도 조금씩 정리하게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5:24).

朋友



여호와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시편 11:7)